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피곤한 호랑이…

KIA Tired

부산 찍고 다시 광주…24일엔 인천으로 이동

‘살얼음판’ 5위 싸움에 체력 유지가 중대 변수

‘호랑이 군단’이 체력과의 싸움을 벌인다.

KIA는 이번 주 5위 라이벌인 SK-롯데-한화와 중요한 일전을 치른다. 1승 1승이 절실한 박빙의 승부는 광주에서 부산 광주로 이어진다. 이동의 연속에 ‘월요일 경기’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체력이 중요한 전력으로 급부상했다.

KIA는 지난 16일 LG와의 잠실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17일 월요일 경기를 치렀다. 9회말까지 팽팽하게 전개된 기 싸움 끝에 2-3의 패배를 안은 선수들은 무거운 걸음으로 하루를 넘겨 새벽에 광주로 돌아왔다.

휴식일 없이 한 주를 연 KIA 선수들은 18일 하루 경기를 하고 19일 다시 짐을 싸서 부산으로 건너가야 한다. 선수단은 사직에서 롯데와의 2연전을 소화한 뒤 21일 밤 다시 길을 거슬러 광주로 돌아올 예정이다. 5일 사이에 900㎞를 달리면서 3일을 이동일로 보내게 되는 험난한 여정이다.

KIA의 고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SK와의 원정경기로 다음 주가 시작되는 만큼 휴식날인 24일 월요일을 다시 이동일로 써야 한다. 27·28일이 kt원정이라 다행히 주중 이동거리는 최소화됐지만 이틀 간격으로 짐을 싸고 풀고, 잠자리를 바꿔야 하는 게 쉽지 않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태산이지만 일요일 경기 도중 우천 취소가 된데다 월요일 접전까지 벌이고 돌아오면서 18일 KIA 선수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순위 싸움의 변수가 등장하자 김기태 감독은 스케줄을 조절하며 전력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흑서기에 30분가량 훈련 시간을 단축하며 컨디션을 조절했던 KIA는 18일에도 ‘4시 훈련’으로 스케줄을 미뤘다. 평소보다 느긋하게 경기장에 나온 선수들은 차분하게 몸을 풀면서 컨디션 조절에 공을 들였다.

김기태 감독은 “(월요일 경기까지 하고 일정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팬들에게 재미있게 해드리는 게 의무 아니겠느냐. 좋은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백용환 “안타 간절한 서민의 공을 잡다니…”

덕아웃 T 톡·톡

▲종길아 눈 피하지 말고 = 18일 선수들의 인사를 받던 김기태 감독의 웃음보가 터졌다. 한 무리의 선수 중에서 신종길의 ‘어색한 인사’가 김 감독의 눈에 띈 것이다. 전날 LG와의 경기에서 우익수로 나선 신종길은 실책성 플레이를 하면서 LG의 승리에 추를 기울이는 점수를 만들어줬다. 전날의 실수가 마음에 걸렸던 신종길. 김 감독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다가 슬쩍 눈을 옆으로 돌리더라”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김 감독은 “종길아 눈 피하지 말고. 자신있게 하라”며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태 감독을 웃게 한 또 다른 인사가 있었다. 보는 이들도 미소를 짓게 하는 필의 공손한 인사. 그라운드에서 몸을 풀고 있던 필이 김기태 감독이 등장 하자 모자를 벗고 90도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또박또박 “안녕하십니까?”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말 인사 정도는 자유자재인 필은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안녕하세요”와 “안녕하십니까”를 구별해서 쓰고 있다.

▲서민 것을 잡더라니까요 = 안타 하나하나가 귀하고 간절한 포수 백용환이다. 17일 LG와의 경기에서 8번 타자 겸 포수로 선발 출전했던 백용환. 첫 타석이었던 3회 1사에서 때린 타구가 바운드가 되어 투수 우규민 옆으로 흘렀다. 내야안타가 되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3루수 히메네스가 달려나와 맨손으로 공을 잡은 뒤 1루로 송구를 했다. 내야 안타가 3루수 땅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백용환은 “안타 하나가 중요한 서민인데 히메네스가 야속하게 공을 잡더라”면서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백용환은 17일 경기까지 93타석에 나와 19개의 안타를 기록했다. 이중 홈런이 7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광수·백용환 ‘이달의 감독상’

KIA 투수 김광수(왼쪽)와 포수 백용환이 7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김광수와 백용환은 구단 공식지정병원인 연희한방병원이 시상하는 이달의 감독상에 선정돼 18일 SK와의 홈경기에 앞서 시상식을 가졌다.

프로 16년차인 김광수는 7월 한 달간 14차례 중간계투로 나서 15.2이닝 동안 10개의 탈삼진을 솎아내는 등 2.30으로 평균자책점으로 2승2홀드를 거뒀다. 특히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하며 승리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백용환은 7월 19경기에 출전해 49타수 14안타 15타점 10득점 타율 0.286을 기록했다. 특히 14개의 안타 중 6개를 홈런으로 장식하며 남다른 파워를 과시했다. ‘안방마님’으로 투수들을 리드하며 끝내기 홈런까지 터트리는 등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이날 시상은 연희한방병원 최관준 원장이 했고, 상금은 50만원이다.

한편 선수단의 팀워크 향상과 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올 시즌 신설된 ‘이달의 감독상’은 매달 투수·야수 각 1명에게 돌아간다. 수상자는 팀을 위해 희생하며 공헌한 선수 가운데 김기태 감독이 직접 선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텍사스 레이저스의 추신수가 18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9회 상대 마무리 페르난도 로드니의 초구에 맞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안타보다 빛난 수비

보살로 팀 승리 지켜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3경기 연속 안타를 때리고 수비에서도 만점 활약을 펼쳤다.

추신수는 18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1사구 2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16일 탬파베이 레이스전부터 3경기 연속 안타를 때린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45(387타수 95안타)로 유지했다. 또 강한 어깨를 뽐내며 정확한 송구로 시즌 4번째 보살을 기록하고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추신수가 중심 타선 앞에 밥상을 차려주는 테이블 세터진의 역할을 착실하게 해냈다. 1회말 1사 후 시애틀 우완 선발 타이완 워커를 상대로 1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끈질긴 승부를 벌여 볼넷을 얻어냈다. 프린스 필더의 중전 안타 때 3루까지 진루한 추신수는 애드리안 벨트레의 좌월 2루타 때 여유 있게 홈을 밟았다.

추신수는 3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워커의 2구째 스플리터를 밀어쳐 깔끔한 좌전 안타로 연결했다. 추신수는 이어 벨트레의 좌익선상 2루타 때 홈으로 들어와 텍사스가 올린 2점을 모두 책임졌다.

추신수는 5회말 1사에서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지만 7회초 수비에서 단단히 한 몫했다.

선발 콜 해멀스가 난조를 보이며 3-3 동점을 허용한 7회초 시애틀의 공격 때 1사 1·3루에서 카일 시거의 뜬공을 잡은 추신수는 노바운드로 정확히 송구해 홈으로 뛰던 3루 주자 로건 모리슨을 잡아냈다. 추신수의 시즌 4번째 보살.

추신수는 9회말 무사 1·2루의 끝내기 기회에서는 시애틀의 마무리 페르난도 로드니의 초구 148㎞짜리 직구에 등을 맞아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몸에 맞는 공으로 만든 무사 만루의 기회에서 필더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벨트레가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 4-3으로 승리하고 5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오늘 방한

평창올림픽 관계자 등 만나기로

토마스 바흐(62·독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박2일 일정으로 19일 방한한다.

바흐 위원장은 19일 오전 입국해 조양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국내 후원사 대표들과 오찬을 한다.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정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서울 종로구 효자로 세계태권도연맹(WTF) 서울본부를 방문해 명예 10단을 받는다. 세계태권도연맹 명예 10단을 받는 것은 전 IOC 위원장인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와 자크 로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바흐 위원장이 네 번째다.

바흐 위원장의 이번 방한에는 구닐라 린드베리 평창동계올림픽 조정위원장과 크리스토프 드케퍼 IOC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두비 수석국장 등이 동행한다.

바흐 IOC 위원장 일행은 20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 22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전인지 4주만에 KLPGA 출격

이번 시즌 한국과 미국, 일본 메이저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4주만에 국내 대회에 출격한다.

전인지는 20일부터 경기도 양평군 더스타휴 휴·스타코스(파72·6672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보그너 MBN 여자오픈(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에서 시즌 5승을 노린다.

전인지의 국내 대회 출전은 지난달 26일 하이트 하이트진로챔피언십에서 한·미·일 메이저골프 대회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이후 4주만이다. 전인지는 하이트진로 대회 이후 브리티시오픈에 참가해 공동 31위를 차지했고, 지난 9일 끝난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는 휴식을 취했다.

전인지는 이번 시즌 4승과 함께 상금은 7억1900만원을 획득하며 다승과 상금 부문 모두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김세영(22·미래에셋)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일정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정민(23·비씨카드)이 전인지의 5승 저지를 위한 선봉에 선다. 이정민은 지난 6월 롯데칸타타여자오픈에서 3승을 올린 이후 두 달 넘게 국내외 대회에서 이렇다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BMW 레이디스챔피언십에서 5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컵을 품으며 상금 순위 2위에 오른 조윤지(24·하이원리조트)와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4년만에 우승을 차지한 이정은(27·교촌F&B)도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이번 시즌 3승과 함께 브리티시오픈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문 고진영(20·넵스)은 이번 대회 참가하지 않는다. /연합뉴스